



최지훈 루끼치 선생.

최지훈 루끼치 선생은 1913년 9월 9일에 원동변강 연해주 수령구역 시베찬에서 빈농인인 최 루끼치의 외남으로 탄생하였다 그의 복친 최루끼치는 1914년에 러시아 군대에 증병되어 제1차 세계 대전에 참가한 참전자였다. 지훈 선생이 탄생하신 시베찬 농은 (현시 로어로 알렉세예프카) 원동에서 유명한 다우지리 농에서 약 십리가량 떨어져 있으며, 포수동과 아래령도 약 10-15리 간격을 두고 있는가하면, 유명한 부두들이며, 대어강들이

나호도가 항파 **백자**진 및 유단재항등도 ^{2.}
약 30-40 리거리씩 두고 놓여 있는 즉 한인들이
지방적으로 살고 있는 큰 촌들의 중심부에 놓여 있
는 동안주의 간도나 연길시와도 상사하였다. 때문
에 매년 한인 **병정**단, 단오 때 **편** 권 원등변강
범위에서 진행 되는 쇼포츠(운동) 시업은 바로 다우
지리와 시베한 사이에 놓여 있는 큰 병원촌에서 진행
되었던바, 동원 등시업에는 동안주에 살고 있는 한인은
동원 등도 참가하였던바, 매년 전선 축구시업에 참
가하여 **병정**을 펼친 간도 "동원중학교" 축구 팀을
그 운동장에 볼인 관객들은 보곤 하였다. 한인들이 강제
이주 당하기 전까지는 매년 한인들의 **병정**단오,
축석이 되면 이광장에서는 축구뿐만 아니라, 씨름
고네 뛰기, 널뛰기, 줄 단기등 운동시업을 조직하는
한편, 한인들이 즐겨먹는 각종 떡, 각종 국수, 떡국,
편 등을 많이 만들어 풍부하게 팔곤 하였다. **병정**이
12월 한인들이 서로 오래 동안 만나볼지 못하는 사한끼
리 서로 만나볼기 위하여 서로 수백리 길도 불어 원리
하곤, 노닐기, 말갈구지, 당나구 등으로 하곤 하여 와서
는 3-4 일 동안은 밖에서, 즉 운동장 주변에 풍
등을 치 놓곤 유숙하면서 운동구경등을 하였다

최지훈 선생은 이렇게 위치 좋고 호양이 비옥하여
 약 20 리 떨어진 끝에는 큰 삼림이 있는가하면, 역시
 약 20 리 밖에는 아래쪽에 연달아 큰 늪변강이 있
 는가하면, 다우지리, 시베찬은 큰 바다에 떨어 지는
 다우지리강, 시베찬강이 들어 그 눈락의 옆을 흐르
 르기 때문에 왼쪽의 큰 바다에서 잡아오는 물이, 가래미
 정어리, 명태 외에도 연어, 농어, 황어 및 송어 등이 특진
 장하게 강을 따라 올라와 가리를 하는 고로, 빛
 물 고기도 쫓쫓아 올라와 잡아먹는 곳이었다.
 최지훈 선생은 향촌 시베찬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1929
 년에 형이 살고있는 우크라이나의 하리검시에 찾다
 가서 러시아도 잘 배우고, 말도 하고 공부도 하려고 결심하
 였다. 최지훈 선생의 형은 혁명시기에 혁명군에 참가
 하여 연속 복역하다가 1924년 복역 다시는 원종에
 돌아올 예상을 하지 않고 계속 하리검소에서 살고 있었
 다. 그러나 자기와 일생을 같이 할 특인은, 1928년에 시
 베찬에 와서 물엿집, 고씨집, 고씨선터란 야쿠 언들의
 절박한 처자(약단.바)를 골라 데리고 갔었다. 최지훈 선
 생은 1936년에 하리검시 농촌정리 대령을 마쳤 하였
 으나 농촌으로 가지지 않고 교편을 잡고 학교에서 일
 하기 시작하시었다. 1941년, 동소전쟁이 시작되자 최
 선생은 공병로써 동병부대에 속하여 적과 싸우게 하였던 바
 그는 파리 포병관학교에서 잠시 공복한 경험이 있어 참 전
 첫날부터 76 리의 디스페리 사단 포 포수로 전쟁의
 마지막까지 우크라이나 광야, 벨사, 웨그리아, 암스-트리아

독일 베를린 시 해방전까지 참전하시였다. 최선생은 제 14 카르바츠 포병근위사단에 속하여 독일군과 대전할시 풍상을 당하여 원시자 병원에 입원하여 두개월간 중환자로 치료받은후 자기가 복무하던 근위 포병사단을 찾으려하였으나 전후부대들이 급격히 대북으로 서쪽으로 향하여 전진하는 관계로 자기 전함부대는 찾아 못내고 최크사령부 제 1인 예비사단에서 전쟁맞아막날까지 참전하시다가 1945년 6월에 아스트리아에서 복무하던 지지훈 선생에게는 모스크바 최고 사령부 간부직으로 복귀 통행장을 받게 되었다. 최선생은 최고 사령부의 명령이기에 모스크바에 도착하니, 간부직에서는 최선생에게서 군사대학에 가서 공부하시라고 하였으나 본래 학생교육사업에 전념을 다하여 원하시던 교육자에 있어서 조국전쟁 5년간도 병종이 나서 대일같이 제대 명령으로 기다리던 최선생에게는, 다시군인 생활을 할생각은 전혀 없어서 제대시켜달라고 요구하니 간부직장은 전쟁로 아직 끝까지 안았는에 제대할 다 주었는가? 하고, 물론 그러면 이번에는 아스트리아로 다시 가지 말고, 원릉변강 소련군 제 25군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였다. 군인은 상관앞에서 꼭 두가지 대답밖에는 할 권리가 없는것이였다. 그것은: 예, 들었습니다, 그렇지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최선생은, "예 들었습니다" 하고 대답한후 간부직에서 원릉 제 1전선 25군단 대일보충국 관하로 파견한다는 파견장을 받아 들고 1945년 8월 1일에 모스크바를 출발하여 원릉변강 우수리시를 향하였다. 8월 10일에 우수리시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체르니 뭇한 군단후



사진은 저혼 록키즈가 무주벙한에 귀환한후
자기 복원 조애자양과 같이 1983년에 찍은것이다

방부, 병기국, 군의소 등이 짐들을 화물차에 실어, 어찌
아침에 만주국 경선을 돌파하고 계속진행하고 있는 전후
부대들을 뒤달아 갈 준비들을 하고 있는것이였다. 최선
생은 역시 아직 자리를 뜨지 않고 무절으로 전후일무들을
수행하고 있는 연합부대와 부대들을 지휘하고 있는 25 집단지
휘부에 찾아가 대령보충국장에게 자기 도착에 대하여 보고
하였다. 최선생은 그후 집단군 사령부 정찰부에 넘어가게
되였다. 25 집단군 정찰부 산하에는 유명하게 일출반
88 정찰터단이 있었으나, 터단장에 중국혁명자 주보준,
참모장에 러시아인 셰로긴이 계셨으며, 바로 이터단제
1 대대장으로 김일성이 자기 대대성원들과 함께
숙하여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서쪽에서 미래 금방 25
집단군 본부에 도착한 최선생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수없
었다. 최선생은 평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집단군 정

좌익에 속하여 자기가 받은 업무만 수행하였다
 때문에 저술 특기치 선생은 노년으로 복귀 되면서
 북한에서 활동한 노년 출신 고려인들이 400 여명이
 넘었지만 서로 알고 지낸 사람은 몇명 없었다
 군대내에서의 정찰이 의무란 전후 행동이 계속되는
 환경에서만 그 사명이 중대하지만 열세가 후방화
 고 조선반도가 중단되며 남북으로 갈라진 조건하에서
 정찰병들이 하여야 할 의무는 점점 사라지고 그대
 신 안기부의 일이 대폭 늘어가기 시작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1946년 정초부터 저술 특기치는 정찰부로
 복귀 송환되며 정치부로 넘어가 그의 직속으로 평양에서
 발간 되고 있는 "소베트 신보" 신문사에서 번역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 신문은 그 당시 두 권대 게첩이
 38선을 경계로 하고 자기 사상의 정당성, 생활성
 전망성을 매일-매시간 있는 힘을 다하여, 각종
 ㉠무당을 다하여 전세상에 전파하고 있는 환경
 에서 저술 특기치 선생은 자기의 전근을 타국
 영예롭게 생각해왔다. 신문은 호지 개혁을 다루고
 호지 개혁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호지는 국가면적의 일부로서 개인이소가 될 수 없
 다고 강조하였으며, 다음 1946년 3월부터 시작한
 산업 국유화에 대하여서도 산업은 국가 경제의 기본
 역량으로 더 발전이 국가의 소망이 되어야 하며, 전각부
 속자가 인간축척의 호대가 되기 때문에 국가적
 전연면적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의
 에도 소베트 국가의 평화 정책에 대하여도, 소련이
 시작한 정쟁은, 만 그가 시작한 정쟁은 만드는데

정당한 경쟁이며,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었다.

7



사진은 1947년에 "소베트 신보" 신문 주필
유르자노프 와 같이 촬영한 것이다.

남한 서울에서 열린 소련 및 미국 대표들의 회의 즉
다시 말하여 소비에트 공산당의에서 소련 주석 스탈린
스 대령과 미국의 제의에 미국측이 동의 하지 않
았기 때문에 소련 대표는 "소련측은 1948년 말
까지 북한에서 철퇴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의한다"고
선언한 그 선언에 따라 북한측은 소련군 제 25군
단은 1948년 12월 까지 완전히 철퇴하게 되
었으며, 그에 근거하여 "소베트 신보" 신문사도
철퇴하게 되었다. 이 당시에 소련 공산당 조
직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소련군 25군단 산하
에서 적을 죽고 북한 각 기관 사회단체, 북한 연변
군 소속으로 있던 전체 고려인 민족들은 극적, 당적

7

군적등에서 제적되어 북한적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시기에 지훈 루끼치는 자기 기본 직업대로 소련
 출신 어린이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평양시에 조직한
 로어고공 (보통 6고공이라고 칭하였음) 에서 수학 교원
 겸 부교장 역을 겸임하였다.

지훈 루끼치 선생은 남성이 아주 온순하고 말성이 드문
 성미로써 누구와도 쉽게 잘 가깝아 지는 사람이다
 선생은 일찍이 항중인 원동변강 시베찬을 떠나
 우크라이나 하리끄브시에서 대학을 나왔고 독소
 전쟁 전까지는 고공에서 수학교원으로 있으면서 러시아 내
 교원에게 장가를 들어 아들 하나까지 태어난 것을 보고
 1941년에 독소전쟁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
 하게도 그의 러시아 부인은 1943년에 사망하고 그녀
 에게서 태어난 아들만은 사라졌었다. 원제는 소련 전
 쟁로, 조선전쟁으로 끝났기 때문에 삼십세 즈음 넘직한
 난파로서 계속 혼자 몸으로 땀 흘려 버텨다. 특히나 할
 아버지 고향 땅 북한 회령 땅은 2년전, 조선 해방 전
 쟁시에 자기 발로 밟아 보지 지나와서도, 그동안 2년이
 란 긴 세월이 지나서로 만사에 겸손한 최선생은 다시
 가 보시지 못하였다. 특별히 자기가 일하고 있는 신
 문사 교장부에서 아름답은 처녀들이 많이 일하고 있었지
 만 장가갈 문제는 매 일같이 차일-피일 밀다나니 2
 년이란 세월이 어느새에 지나갔다 그러던차 평양시
 중앙위치, 대동문 앞에 넘어 펼쳐 놓은 경리되는 번화한
 중앙 시장과 평양 중앙 백화점을 비롯하여 무엇이나 떠버리
 눈앞에 구비 갖추었다. 한 줄 걸터서 줄-줄이 서 있는 어둠에서
 살고 있어서 상직이 밤 불이 켜져 선물시에서 취직하고 있던 처자
 조 애자와 악수하고 복을 전해달라니 동의를 얻어 이어 걸
 8

눈까지 하게 되었다. 옛날부터 조씨가 가문은 양반
 내척이어서 어떤 저만한 집안인데, 애자도 그 가문의
 나쁜놈 딸이요, 그집에 아들 만 하더라도 3형제나 되는
 집이었다. 어떻게 새가정이 이루어지자 약 1년여 지
 난후 지촌 록기치는 6고종 부교장검, 우학교원으로
 복임되여 ^이하사면서 아이들의 교육교양에 전력을 다
 하였다. 최 선생은 동족 상잔 시기에도 아동들의 교육사업
 에만 꾸준히 노력하시었다. 1957년인 뒤라 서양에서
 도 지적하였지만 아주 우수한 성의를 가진 최 선생도
 당 사상 검도 회의에 저격마라 불려다 농고는 12대 조선
 신들과 조선 책만 즐겨 읽는가? 조선파 거목들이 허가이,
 박정복, 박희완, 남일 등만 어떤 열악이 있었으며, 왜
 조선만 좋다고 어린이들에게 선전하는가? 조선 사대주
 의자나, 조선파의 하려는 12대 당회의에서 심문하고, 조사
 하고 하여, 평양에서든 계속 살아가야 하는 1957년
 12월에 조선 대사관에 국적회복과 업국허가증 발급에
 대한 정원을 제출하여, 1958년 8월에 조선 호르크바
 에 귀국하였다가 조선 공산당 중앙 조직부에서 물건
 수속 절차를 걸쳐서 다슈켄은 시에 도착하여 사행
 을 배정 받고 밀라리 수속을 하고, 아이들의 공부를 계속할
 수제르 ^이정말 반반했다. 지촌 록기치는 조선에 귀국한 모든
 들은 연노금을 받는 연금생활을 계획하고, 교육사업을 계속
 하지 않고 "클로드노쓰트로이" 라는 처녀지 개간 건설장
 에 가서 3년간 교생할것을 각오하고 다슈켄트에서
 약 120 킬로메타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시면서 재
 노모일과 밀모일만어 집에 와서 계시곤 하였다.

세월은 단없이 빨리 흘러 1973년이 되자 지지눌 루끼
최는 비교적 높은 연금을 수령하여까지도 자기 가정에 들어왔다.



지지눌 루끼씨 선생의 60세 - 환갑에 축하하여
친척들이 모여 축하하는 장면.

최 선생은 나이는 60 고령을 맞이하여서도 신체는 아주
건강해왔다. 때론 높은 연금 생활을 하면서도 부근에 있는 고층
에 나가 매일 몇 시간씩 운동 시간을 꼬박하곤 하였다. 이
렇게 70세 되는데까지 매일 같이 학교에 나가 어린 세
대들의 교육에 힘을 받으면서 노년 시기 고독을 즐겼었다.
금요일에 이천과 같이 여권하 하뉴켄튼, 칠탄사르 구
제 9동 31 아바톤에서 건강한 몸으로 날이면 선술과 칵테일,
저녁이 12월 칠탄사르 파 라리온을 흥하여 극제 경치를
하곤 배차지 없어 연구하면서 항상 남쪽 하늘을 쳐다
보며 원망하는 것은 볼판된 조국 흥일 되리 못하는 때 때
하여 애하게 녹심 세기며 매일-매일을 벌여내고 있다.
최 선생이 항상 다 뜻한 사람을 만나며 벌써 반세기동안 10
가이 사그 이...



조애자 사모님이 평양에 도착하여 자기 모비하
 조여절, 자기 형 조애선과 함께 환갑상을 받고
 있는 장면.

애자 사모님은 1993년에, 때 맞음에도 자기 한생 70
 주년이 되는 해에, 또 달콤한 유년시대, 학창시대를 보낸
 정든 고향 떠나지 35년만에 친척을 찾아서 평양시
 모란봉 태태기둥 경제리에 갔었다. 집에 간다는 소식을
 들은 친척들은 평양 역전에서 반가히 맞이 하였으며, 35년이
 지나는 사이에 아버지 어머니는 벌써 별세하시고, 또 여남
 친척들로 역시 그로움게 되었다 참 세월이란 사경없는
 무서운 흐름이다 애자 사모님은 평양에서 떠나서 1947
 년에 시집간 다음 우르베코한에 와서 아들 형제 딸 형제
 여다 또 남편의 분부인께서 난 다음까지 합남리 3형
 제 성장 시키다 보니 인제 누네가 되었다 보니 세월이
 흐르면은 남이 흘렀다 그러나 그사이에 친척이 많은

12

타향에 와서 긴 세월을 살아보니 환갑상이란 받지못하
 였다. 그때 물에 모래가 많이 만난 친척 집에서 특히 호박과
 죽이름생의 환갑상 초리는 것을 받지못하고 내가 뉘를 끄지못한
 다고 하면서 평양 살림사리 행동권이 크게 너그러워지듯한 형
 편에서로 꼭 환갑상을 받고 집에 돌아가라 하였기에 어렵게 대사를
 끼었다. 지지눌 록게 외 양주도 부부가 된 첫날부터 어디까지
 지 아국 다경히, 어곳에 모범되게 살면서 복을 많이 받
 은 가정이다.



아들 3 형제중 작은 아들은 (Xaper) 하리끄브시에서 살
 러 큰 공장의 책임기사를, 다음 아들 형제는 하슈겐호시
 권설장에서 책임자를 맡고, 큰 딸은 뱀이제르부르크
 에서 살고 있다, 둘째 딸은 현재 벨로루시에서 농업조합
 에서 일하며 살고 있다 하슈겐호시 살고 있는 자식

131
들은 내국 북민들의 집에 찾아와 보고, 돌아올일이었으
면 잠기로 하고, 파라나 사이다 유모수같은 것으로 들고 오곤 한다.



그저 늘 죽게치 선생은 이렇게 책과 신문 등을 달
려서 읽으며 조국의 흥일을 위하여 깊은 연필
을 하시곤 계신다.

1997년 10월 29일 하유권은